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감원 기업 직접금융 자금조달 증가

- 9월중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- 2010년 9월중 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은 10조 9,265억 원으로 전월의 7조 8,530억 원과 비교해 3조 735억 원 증가함.
 - 최근 주가상승 및 채권금리 하락 등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어 기업들이 유상증자, 회사채 발행 등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를 크게 늘린데 기인함.
- 기업들의 9월중 주식발행 규모는 1조 2,345억 원을 시현하여 전월대비 9,908억 원(406.6%) 증가함.
 - 기업공개는 11건으로 전월의 6건과 비교해 약 두 배 증가했으며 총금액은 4,733억 원을 나타내 전월 1,557억 원과 비교해 3,176억 원(204.0%) 증가함.
 - 유상증자는 11건, 7,612억 원으로 금액기준 전월대비 765.0%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는데, 여기에는 KDB생명보험 등 비상장 금융회사의 대규모 직접공모증자가 크게 작용함.
- 9월중 회사채 발행의 경우도 전월 7조 6,093억원과 비교해 2조 827억원(27.4%) 증가한 9조 6,920억원을 시현함.
 - 저금리 기조로 BBB등급 회사채의 투자선호가 높아지면서 BBB등급 회사채 발행이 증가해 일반회사채는 전월대비 19.2% 증가한 4조 1,212억원을 시현함.
 - 금융채의 경우 발행건수는 78건으로 전월대비 5건 증가했으나 금액으로는 2조 1,212억원을 나타내면서 전월대비 8.7% 감소함.
 - 자산유동화증권(ABS)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규모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에 기인하여 전월대비 507.3% 증가한 1조 7,095억원을 나타냄.
 - 은행채는 지난 7월까지 월평균 발행규모가 3조원 정도였으나, 8월 이후 시중은행의 유동성 확보 등으로 인해 월평균 발행규모가 약 1.6조원 수준으로 감소했고, 9월은 1조 7,400억원으로 전월대비 12.4% 증가함.

(2010년 9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, 금감원, 10/27)